

‘김종국 감독 경질’ 악재 맞은 KIA...차기 감독·캠프 어떻게 되나

KIA, 새 사령탑 찾기 돌입...심재학 단장 “신중하게 다가갈 것”
진갑용 코치 체제로 스프링캠프...“계획대로 밝게 훈련했으면”

KIA 타이거즈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종국 감독을 경질했다. 빠른 결단을 내린 KIA는 충격을 타고 눈앞에 놓인 선결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KIA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지난 2022년 8월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원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원 받은 혐의다.

28일 김 감독에게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던 KIA는 30일 예정된 김 감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후속 조치를 취했다.

구단은 29일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KIA의 제10대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며 해임됐다. 현재 감독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A는 개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장을 잃었다. 조속히 새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지만, 감독이 불명예를 안고 퇴장한 만큼 차기 감독 선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학 KIA 단장은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차기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다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KIA 선수단은 스프링캠프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 감독의 경질 소식을 접하게 됐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차 스프링캠프자인 호주 캔버라로 향하게 된 가운데 진갑용 수석 코치가 선수단을 추스르고 시즌 준비에 나선다. 진 코치는 차기 사령탑이 스프링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팀을 지휘한다.

중책을 맡은 진 코치는 29일 출국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선수단과 호주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선수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다. 너무 동요하지 말라고 하겠다”며 “항상 우리가 운동하는 식으로, 루틴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진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만남을 가진 심 단장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심 단장은 “힘들겠지만 코칭스태프가 평소



시와 같은 분위기로 팀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원래 갖고 있던 계획대로 밝게 훈련했으면 한

다”며 “진갑용 코치가 힘든 상황에서 스프링캠프를 이끌게 됐다. 리더 역할을 잘해달라고 부

탁했다”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이정후, 내일 출국 시즌 준비...MLB 도전 본격 시작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음달 1일 출국을 앞두고 메이저리그(MLB) 데뷔 시즌을 준비한다.

이정후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코스스포츠에 전시는 이정후가 2월 1일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난다고 30일 밝혔다.

이정후는 미국 도착 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샌프란시스코 스프링캠프 훈련 시설로 이동해 현지 적응에 들어간다.

샌프란시스코는 2월 16일 투수와 포수가 먼저 스프링캠프에 돌입하고, 21일 야수 합류로

완전체를 이룬다.

이정후는 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야수 소집일인 2월 21일 이전에 캠프지로 갈 전망이다.

2023시즌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B의 문을 두드린 이정후는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달러(약 1504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4년을 뒀 후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에이전트(FA)가 될 수 있는 옵션아웃 조항도 포함했다.

거액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이정후는 데뷔 시즌 1번 타자 중견수로 기용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후는 2월 25일 시카고 컵스와 시범경기부터 바리케이트를 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시범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한 뒤 3월 29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버밍엄행 백승호, 유럽 재도전...“잉글랜드행 꿈 이뤄”

“모브레이 감독, 입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프로축구 전북현대 미드필더 백승호(27)가 유럽 무대에 재도전한다.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성장해 독일 리그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가 잉글랜드 2부 리그팀에 입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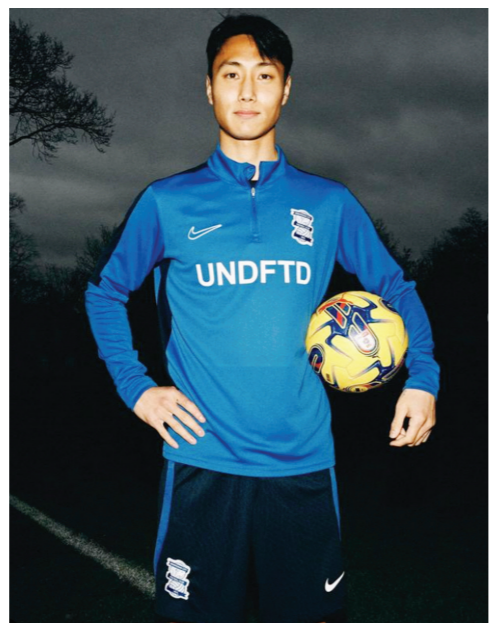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팀인 버밍엄시티는 30일(한국시간) 백승호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등번호는 13번이다. 버밍엄시티는 2부 리그 24개팀 중 20위에 머물며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이다. 2부 리그 우승 횟수는 4회다.

구단은 이날 누리집에서 “잉글랜드와 유럽 각국에서 구애를 받던 26세 백승호가 우리 구단과 2026년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단은 백승호의 이력을 소개했다. 버밍엄시티는 “유소년 시절을 포함해 10년 이상 유럽에서 뛰 백승호는 이후 3년간 고국 전북현대에서 뛰었다”며 “A매치 15경기에 뛰었고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브라질전에서 놀라운 골을 넣었다. 아시아게임에서도 우승했다”고 설명했다.

백승호는 잉글랜드 무대에 입성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구단과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잉글랜드에 오는 것이 꿈이었다”며 “버밍엄시티가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어 “꿈이었을 때부터 버밍엄시티를 알고



있었다”며 “감독, 단장과 만난 뒤 입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백승호는 토니 모브레이 감독과 공방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브레이 감독이 내가 나를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해줬고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모브레이 감독과 대화하면서 편안함을 느꼈고 동기 부여가 됐다. 이것이 내가 이 구단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아쉬운 메달 불발...김지니-이나무 “성인 올림픽 위한 경험했다”

강원2024 아이스댄스서 0.76점 차로 메달 놓쳐



“성인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경험을 발판삼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친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기술점수(TES) 44.40점, 예술점수(PCS) 38.42점을 합해 82.82점을 받았다.

지난 28일 리듬댄스 점수(66.58점)와 합해 총점 139.40점을 받은 김지니-이나무 조는 4위가 됐다.

140.16점으로 3위를 차지한 애슬리 슬레터-에를 온게이 페레스(영국) 조와는 불과 0.76점 차였다.

김지니-이나무 조는 리듬댄스에서 3위에 올라 한국 피겨 사상 첫 동계청소년올림픽 아이스댄스 메달 기대를 키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 뒤 믹스존에서 결과를 지켜본 김지니-이나무 조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나무는 “사실 많이 아쉽기는 하다. 3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수가 나왔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 “처음이자 마지막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잘하고 싶었고, 리듬댄스에서는 잘했다. 그런데 프리댄스에서 실수가 조금 나와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이번 대회에서 기대가 많았는데 실수가 나와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 미안해질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발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던 김지니는 고마운 사람을 말해달라는 말에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나무는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항상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메달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안방에서 열린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이들에게 경험이 라는 큰 선물을 줬다.

김지니는 “우리가 나왔던 대회 중에서도 이번 대회가 큰 대회였다. 큰 경험을 쌓았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나무도 “실수 때문에 슬퍼하고, 언제까지고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일어서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은 뒤 “이런 압박감이 큰 대회는 처음이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를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설을 활용해 개최했다. 평창 올림픽 당시 아이스댄스에서 테사 버츰-스콧 모이어(캐나다) 조와 가브리엘 파파다키스-기욤 시즈롱(프랑스) 조가 금, 은메달을 땀다.

버츰-모이어 조와 파파다키스-시즈롱 조는 김지니-이나무 조의 우상이다. 이들이 경쟁했던 빙판에서 연기를 펼친 것은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나무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지만 많은 관중 앞에서 연기를 펼쳐 흥분하고 긴장됐다. 성인 올림픽이면 압박감이 더했을텐데 두 조 모두 이런 환경에서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뽐냈다”며 “그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지니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동계청소년올림픽 덕분에 경험을 해봤다. 성인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발판삼아 긴장을 잘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 피겨 남녀 싱글에서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유망주가 대거 등장했지만, 아이스댄스는 불모지로 여겨진다. 국내에서 국제 무대에 도전하는 아이스댄스 조는 임해나-취안에(이상 경기일본), 김지니-이나무 조 뿐이다.

김지니-이나무 조가 계속해서 성장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뒤를 이을 후배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나무는 “탄약에 아이스댄스를 하는 후배가 생긴다면 서로 마음에 안드는 점이 생겨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조언해주고 싶다. 3번 더 생각하고 불만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서로를 믿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피겨는 다른 스포츠보다 변수가 많다.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미래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나무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니냐는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지니는 후배들을 향해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나올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출전했으면 좋겠다. 긴장감도 있지만 포레들과 어울리면서 대화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즐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